6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란?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근거하며,
도서정가제 준수 안내 및 사재기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위반신고

- ☑ 신고센터에서 위반 신고건을 조사하여 위반 확인 시 업체 관할 지자체 신고
- ☑ 누구나 위반 업체 소재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출판사 영업신고 부서에 직접 신고 가능
- ☑ 위반 시 관할지자체 조사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재기 위반신고

- ☑ 신고센터에서 조사하여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심의 · 의결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 ☑ 누구나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 및 고발 가능
-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s://www.kpipa.or.kr/cleanBook/main/main.do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메인 배너-불법유통신고센터)

전화 063)219-279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우:548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대표전화 : 063-219-2700

책을 지키는 바른길,

도서 정가제

http://www.cleanbook.or.kr/
063-219-279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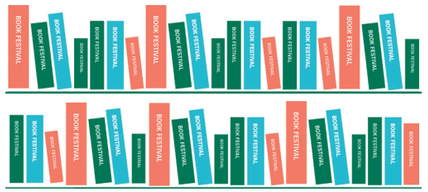
1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정한 책의 정가대로 서점 등의 유통사가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독서 진흥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하여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 및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할인은 최대 10%이내 허용)

도서정가제 한눈에 알아보기

구 분	도서정가제 내용	비 고
적용대상	모든 도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ISSN), 수입도서, 중고도서 예외
적용기간	모든 도서 (신간, 구간 구분 없음)	구간도서 (발행 후 12개월이 지난도서)는 정가 변경 가능
할인범위	정가 15%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 조합하여 가능 단, 가격할인은 10%이내	간접할인 : 물품(도서제외),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



2

도서정가제를 지키는 일은?

다양한 책을 고를 선택권을 독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가치 있는 지식 문화를 풍부하게 살리는 힘이 됩니다!

도서정가제는 문화를 보호 · 육성하고 지식정보의 유통질서가 가격경쟁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언어권 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협소한 우리나라 출판시장 상황에서 우리 문화를 보호 · 육성하고,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의 창작환경 조성, 출판의 다양성 보장, 중소 출판사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촉진하여 독자에게 양질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저작권자의 창작 활동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밑거름

지나친 가격할인 경쟁으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을 방지하고,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여 독자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도서 출판 기회 제공

유통사 간의 과다한 가격할인 경쟁 및 출판사의 독단적 도서 정가 인상은 결국 독자, 서점, 출판사 모두가 피해를 입으며, 양서보다는 충동구매 유도 또는 가격할인으로만 팔리는 특정 분야 위주의 출판활동에 치우쳐 인문·학술 등의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도서정가제는 이렇게 지켜야합니다

서점 : 출판사 등 판매자는 도서 정가 15%이내 직접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에게 도서 정가의 10%까지 가격할인을 제공할 수 있고, 5%는 물품(도서 제외),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 가격할인 5%시, 10%간접할인 가능)

총 도서 정가의 15% 할인 범위 안에서 경품 등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 추첨식 경품제공, 리뷰 및 댓글작성 이벤트 포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공도서관에 판매하는 도서 또한 합리적 도서정가제 시행과 정착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며, 가격할인 10%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판물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중고도서'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도서를 말합니다.
- '미개봉 새 책' 등 새책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리퍼도서, 진열도서, 반품도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입니다.

도서전, 지역행사 등의 축제에서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됩니다.

오픈마켓 등 판매중개자는 단순히 중개자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판매행위(판매가격에 영향을 주는)에 개입할 경우 판매자에 해당되므로 도서정가제를 준수해야합니다.

도서와 일반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 도서 정가와 할인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ex. 학원 강의와 교재, 장난감과 도서 등)

도서 부록이나 안내 책자 등 비매품 증정은 가능하나, 가격이 정해져 있는 도서를 무료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정가 변경(재정가) 도서는 ISBN이 변경되지 않고, 변경된 가격 기준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습니다.

4

도서 사재기는 불법입니다.

도서 사재기란?

특정 도서의 이해관계자가 특정 서점 등의
판매량 순위를 불공정하게 상승 또는 유지시킬 목적으로
해당 도서를 부당하게 구매하거나 간접적으로
이를 조장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없는
선의의 일반 독자 대상 판매량 집계에 작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를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서 사재기 문제점

1. 독자의 도서 선택권을 방해하여 국민 독서생활 악영향
2. 사재기를 하지 않는 출판사의 건전한 홍보활동 방해
3. 사재기 비용이 도서 가격에 반영되어 독자 부담 증가

5

정가 변경 제도(재정가)

**도서 정가를 다시 정하는 하는 것을 말하며,
발행 후 12개월이 지난 도서에 대해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출판사의 효율적 재고 관리를 위하여 도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정가 변경 방법은?

- 출판사가 발행 후 12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 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정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정가 변경 신청 도서는 시행일자 기준 15일 이전까지 수정가능하며, 16일 이후에는 수정 및 정가변경 취소가 불가합니다.

* 매월 16일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홈페이지 내 공표자료 게시판에 정가변경 목록을 공표합니다.

정가 변경 등록 절차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홈페이지 접속
(https://bnk.kpipa.or.kr/home)및 회원가입**

☑ **도서정보 입력 및 정가 등록**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도서만 정가변경 가능하며 해당 도서 데이터를 불러온 뒤, 변경 정가를 등록합니다.

☑ **정가 표기 및 인쇄 작업**
변경 정가를 도서에 표기하여 시행일 이후부터는 변경 정가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행일 이후부터 변경된 정가로 도서를 판매하여 이중 정가로 유통되지않도록 정가 관리에 유의바랍니다.